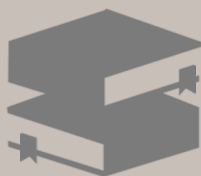


2021

전국학생행진
팸플렛 2호

행진

보궐선거
특집호



글01

: 다가오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셨
나요?



요즘은 MBTI가 유행입니다. 인간의 성격유형을 16개로 나눠 자기 자신을 해석해주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조언해주는 재미있는 도구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ESTJ, ‘엄격한 관리자형’입니다. 저는 계획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가장 답답합니다. 저와 반대 유형에 있는 사람인 INFP는 ‘열정적인 중재자형’은 아마 상상력이 풍부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미래를 상상할 수 없을 때, 불안감을 느끼겠지요. 보궐선거와

성격 유형은 무슨 상관일까요? 이번 보궐선거는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이 선출하는 대규모 재보궐 선거이자 다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선거구도는 문재인 정권 출범 4년차를 맞아 국정안정 대 정권심판입니다. 이런 선거를 앞두고, 20대 청년들이 민주당 집권 4년차를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재 민주당이 운영하는 나라는 '엄격한 관리자형'인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한 나라입니다. 어떠한 계획도 없고, 어떤 정책이 재난지원에 필요한지 검증, 조사도 없기 때문입니다. '열정적인 중재자형'이 보기에 민주당이 운영하는 나라는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재난 지원을 모든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지속한다면, 나라 경제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격유형을 말했지만, 한국은 어떤 유형을 막론하고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특히 20대 청년이 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오래된 취업난으로 청년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90년대생들은 사실상 경제위기가 아닌 시대에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 만성적이라 경쟁이 아닌 상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 현실이 변화하기는커녕 더 나빠지지만 앓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현재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17년,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탄생

했고, 각종 외신들은 한국이 대단하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겨레에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민주주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질문에 386세대는 “자유”, IMF 세대는 “비효율”, 20대는 “허세”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회가 상당히 변화했음을 모두가 느끼던 2016년 말 촛불집회 앞에서, 20대는 ‘민주주의’가 자유도, 비효율도 아닌 허세라고 느꼈습니다. 사회를 바꿔본 경험도, 정치, 권리를 경험해본 적 없는 20대는 더이상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20대가 ‘민주주의’를 보고 ‘허세’를 떠올리는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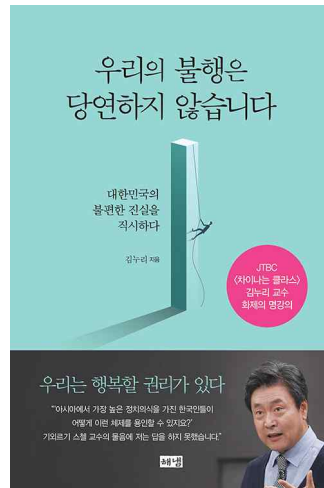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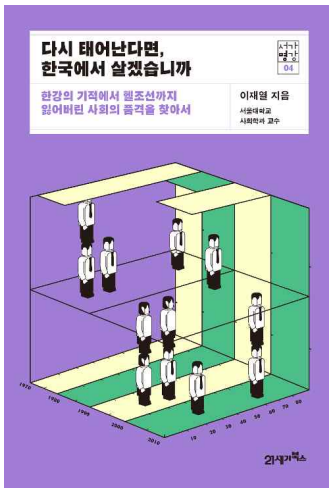
누군가는 이런 청년들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으로 위로하기도 했고, 저항하지 않는 청년이 답답하다며 직접 저항하라 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386세대에게 그 저항이 돌아가는 조국 관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386세대는 보수정당의 사주를 받은 청년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20대 내부에서도 조국 사태에 대한 SKY 중심으로 '입학취소'를 말하는 집회가 적절한 저항인지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20대 청년에게 필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20대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는 사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국학생행진에서는 4.7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맞아,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말해보려 합니다.

1.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한국에 사는 우리만 불행한겁니다!

“허경영이 당선되면 사람들에게 1억씩 준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 하는 얘기는 정말.”

“국회의원은 직업이에요. 자기들이 택한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 잘살게 해줘 바랄 수도 없고 바래봤자 헛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라는 책에 나온 20대의 항변입니다. 책 제목부터 도발적인 이 책은 꽤나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입니다. (알라딘 기준 사회 정치 top100 5주) 한국이 선진국이

라는 것에 비해 국민 대다수는 이 성과를 ‘남의 이야기’로 느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저자의 주장. 20대에게 더이상 이런 주장은 낯설지 않지만, 해결책은 매우 낮은 주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해결책으로 ‘더불어 사는 비전을 제시하고 모두의 불안을 모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 불행이 당연할까? 에 대해 답하는 책도 있습니다. 독일 사회와 한국 사회를 비교하면서 쓴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는 한국 사회를 더 넓게 생각해볼 수 있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 끌리는 이유는 한국 청년들이 어느 날은 절망하면서도 어느 날은 다른 사람도 모두 똑같이 살고 있다면 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날들을 자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불행이 없다고 부정하거나, 괜찮다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사는 우리의 불행이 당연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특히 저자는 한국의 86세대와 유럽의 68혁명 세대를 비교하면서, 86세대는 정치게임에 능했지만 사회개혁에 무능했고, 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수구보수와만 경쟁해오며 도덕적 우월감만을 선취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86세대의 비전 없음’은 냉소주의, 패배감, 좌절, 무력 같은 사회적 후과를 남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우경화된 정치 지형, 그 사이 허구적 대립 속에서 이를 억제하는 중도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책은 모두, 한국 청년 세대의 불행과 중도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복잡한 현실에 비해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비전과 정책이 부족한 한국 정치권의 현실을 짚고 있습니다. 20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은 모두 동일합니다. 종종 정치 혐오자로 지적되는 20대는 사실 정치혐오자가 아니라, 현재 20대들이 찍을 사람이 없는 정치권 현실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러한 정치인의 수준을 고려할 때, 중요한 해답은 정치인이 20대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게 정치인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정치인의 수준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20대의 정치를 향한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행진에서는 정치인의 수준을 바꾸기 위해선 먼저 20대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인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관심한 20대의 조건을 한 번에 뒤집어, 정당에 가입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 같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86세대가 20대를 정치혐오자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면서, 최소한 시민으로서의 어떤 사안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선택할지, 그런 의견들이 모여 20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타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20대의 방법은 20대가 선거라는 최소한의 정치 참여를 시작으로, 보궐선거에서 정당들이 활용하는 전략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중도층의 나라, 대한민국



80년대생 저자들이 쓴 『추월의 시대』는 한국 사회가 선진국의 진입했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실증적 통계로 고민하는 책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극단적 지지층만 보이는 정치 대립이 눈에 띄지만, 사실 한국은 ‘중도층의 나라’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대립으로 표현될 수 없는 중도층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중도층들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양쪽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는 80년대생 이후 젊은 세대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추월의 시대』에서 저자는 80년대생들이 산업화 세대의 자녀이면서도, 민주화 세대가 대학에 남긴 학생운동의 흔적을 경험한 세대

라고 진단합니다. 이런 진단을 만약 90년대생에게 적용해본다면, 90년대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386세대 혹은 언론이 생각하는 90년대생들은 '민주당을 싫어하고 보수화되어있는 남성 (소위 20대 보수화 담론) VS 페미니즘에 찬성하는 여성의 대립' 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되어있습니다. 90년대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90년대생은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언론, 기성세대는 90년대생을 주로 성별갈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모두를 지지하는 중도층이 강력하게 형성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90년대생들은 민주화 세대 즉 60년대 ~ 70년대 초반생들의 자녀이면서, 민주화 세대 부모에게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보수정당은 안된다는 인식을 내면화하면서 자라왔습니다. 혹은 민주화 세대로 묶임에도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부모 아래서 자란 90년대 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족해진 일자리와 저성장 국면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 조건을 포함하는 경제성장 역시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중도층은 선거를 앞두고는 특정한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중도층은 선거를 앞두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궐선거를 앞둔 20대들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20대가 어떤 의제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예측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싫다는 마음이 더 클지, LH 사태 앞에 분노하는 마음으

로 민주당이 싫다는 마음이 더 클지 알 수 없습니다. 20대, 특히 중도층 20대의 마음은 언론에 잘 대변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20대의 선택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진짜 20대는 보수화 된걸까? 민주당이 문제다.

20대 남성은 꾸준히 다른 세대, 다른 성별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전 부산시장,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20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런 추세가 유지될지는 잘 모릅니다. 20대는 과연 무슨 선택을 하게 될까요? 20대가 정말 보수화된 걸까요? 행진에서는 민주당이 문제적이라는 전제 속에서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행진에서는 중도층이라 생각하는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궐 선거에서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중도층이 되어야 합니다. 임기 5년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서 1년짜리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이번 ‘보궐 선거’ 자체가 특수한 선거인데, 이번 선거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서울시, 부산시 전임 시장들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사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반대를 꺼내왔습니다. 보궐선거 직전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은 노무현의 꿈으로 제시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

결정된 조치들을 모두 뒤집고 가덕도에 짓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 박형준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 환경단체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낙연 당 대표는 LH 직원 투기 사건 역시 LH의 권한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 강화되었다고 제기했습니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이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권에 대한 반대만이 유일한 방향이자 논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에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거를 이겼다고 판단하는지, 이번 선거를 위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선거 전에 집행되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지를 얻겠다는 것은, 국가의 자원, 세금을 활용해서 표를 얻으려 하는 매표(買票)행위입니다. 또한, 부산 지역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원을 활용해 선거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행태이지만, 재난 지원을 핑계로 정당화하면서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합리성과 계획 없이 이전 정권을 반대하기만 하는 정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정부를 20대가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은 1. 다가오는 서울, 부산 시장 선거, 누구 찍을지 결정하셨나요? 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차례로 1.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왜 개혁 정책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 대한 반대만을 가지고 있는지와 2. 가덕도 신공항과 재난지원금이 왜 대표행위인지를 고민해보려합니다.

* 글 2.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으로 포장된 내로남불을 멈춰라!>
글 3. <재난지원금, 가덕도 신공항으로 당신의 표를 가져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차례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